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8.1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佛, 자국민 살해 테러범 추격전 개시

-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일 니제르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던 자국민 6명을 살해*한 테러범을 극단주의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판단, 검찰 수사와 동시에 軍병력을 이용한 추격전을 개시했다고 발표

* 8.9 11:30경 프랑스 국적 인도주의 활동가 6명이 니제르 구호활동을 위해 현지 가이드와 차량으로 이동중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

미 주

○ UN 대테러실, 테러단체 勢 확산에 우려 표명

- 8.7 「블라디미르 보론코프」 UN 대테러실 사무차장은 “테러리스트들이 코로나19로 야기된 혼란과 경제난을 분열 및 극단화 조장의 계기로 삼고 추종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확산의 촉매가 되고 있다”고 우려 표명

○ UN 美 대사, 이란 무기 금수조치 연장 촉구

- 8.7 「켈리 크래프트」 유엔 주재 美 대사는 이란이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임을 내세우며, 중국과 러시아에 對이란 무기 금수조치 연장을 압박
 - * 美 대사는 “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무기 금수조치 연장 非동의시 이란과 공동 테러 후원국이 될 것”이라고 경고

○ 美, 뉴욕 지하철 테러 모의한 40대 남성 법정 최고형 구형

- 8.10 美 당국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뉴욕 지하철 지도와 이미지를 올리며 테러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「재커리 클라크(41)」가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20년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발표

* 同인은 '19년 이후 이슬람 테러단체에 충성을 맹세하고, 미국 등지에서 활동

아 · 태평양

○ 화학물질안전원, 화학물질 사업장 정보공유체계 강화

- 8.6 화학물질안전원은 지자체(65개) 및 소방관서(84개)와 「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* 공유체계」를 구축하여 각종 테러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·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

* 사업장 기본정보, 비상대응분야 요약서, 방재물품 현황, 주민행동요령을 비롯하여 화학 비상대응분야의 우수사례와 Q&A 등을 망라한 정보체계

○ 인도, 도시락통 활용 테러자금 지원 조직원 체포

- 8.9 인도 경찰은 도시락통을 활용하여 파키스탄으로부터 테러자금 조달을 시도한 라쉬카르-에-타이바(LeT) 조직원 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


* 同 조직원에게 12.5만 루피(약190만원)가 들어있는 도시락통 4개 압수

○ 아프간, 파키스탄 테러단체와 알카에다 공생 관계 주장

- 8.10 「모하마드 아트마르」 아프간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테러단체인 라쉬카르-에-타이바(LeT)와 자이쉬-에-모하메드(JeM)가 알카에다와 공생 관계이며, 아프간 내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언급

* UN은 파키스탄 외국인테러전투원(FTF) 6,500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중이라고 분석

중 동

○ 이스라엘, 레바논 내 헤즈볼라 세력 비난

- 8.10 「베니 간츠」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“헤즈볼라는 민가에 무기와 폭발물을 은닉하고 있다”며,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(사망 158, 부상 6,000)이 헤즈볼라의 무기고로 번졌다면 더 큰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주장

○ 이라크, ISIS 조직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 전개

- 8.10 현지언론은 이라크 보안군의 합동 특별작전사령부가 북동부 다이얄라주 6개 마을에서 ISIS 조직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, 4개의 관련 세포조직 및 거점 6곳을 파괴하였다고 보도

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차량돌진테러

- '17.8.12 14:00경 美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반(反)인종차별주의자 행진 행렬에 차량을 돌진, 1명이 사망하고 28명 부상



-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 「제임스 알렉스 필즈」(20세)는 오하이오주에서 백인우월주의자 집회 참석을 위해 샬러츠빌까지 왔으며, 백인우월주의·네오나치·파시즘 옹호자인 것으로 확인
- 同 사건은 市 정부가 샬러츠빌 해방공원에 있는 「로버트 리」장군* 동상 철거계획을 발표하자, 美 전역의 백인우월주의 극우단체 회원 6천여 명이 모여 동상 철거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고
 - * 美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남부연합군을 이끌었던 인물
 - 同 집회를 규탄하는 반(反)인종차별주의자들이 모여 행진을 벌이면서 양측 간 갈등이 극단적인 차량돌진 테러로 비화
- 범인은 버지니아 주법원에 1급 살인·가중상해 등 10건의 혐의로 기소되었고, '19.7월 종신형 및 419년 징역형 확정

< 폭발물 테러 >

- (정의·종류) △군용 폭탄류, △다이너마이트 등 상용 폭발물, △금조폭발물(IED), △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지칭(금조폭발물과 사제폭발물이 널리 악용)
 - ※ 폭탄(폭발물)은 전원(Power), 스위치(Switch), 뇌관(Initiator), 폭약(Explosive)으로 구성
- (금조폭발물) 보통 기존의 폭발물에 약간의 개조·가공을 거쳐 전투·분쟁지역 등 현장상황에 맞게 원격 또는 부비트랩(함정) 방식으로 폭발하도록 꾸민 것을 통칭
- (사제폭발물) 폭발물 구성요소 4가지 재료를 각각 구해 만든 폭발물을 지칭하며 HME(Home made Explosive)라고 칭하기도 함(금조폭발물도 사제폭발물에 포함될 수 있음)
- (주요 사제폭발물 종류) △못·나사 등을 비산시켜 피해효과를 높이는 네일(못)폭탄, △폭발압력을 최대한 응집했다가 확산시켜 폭발력 효과를 높이는 압력솔폭탄, △양 끝단을 단단히 막은 금속파이프로 압력솔과 같은 효과를 내는 파이프폭탄 등